

● 전국도서관대회 제4주제발표

# “전문직단체” 이대로 좋은가

최 정 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 目 次

1. 전문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2. 사서는 과연 전문직인가?
3. 전문직단체 이대로 좋은가?
4. 결론에 대신하여

### 1. 전문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전문」이란 말은 원래 직업에서 나온 말로서, 한 가지 일만을 오로지 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적고 있다. 그리고 이 용어는 독립해서 쓰기 보다 관청어로서 「전문가」 「전문교육」 「전문기구」 「전문음식점」 「전문직공무원」 등의 명사에 붙여 사용하기도 하며, 남들이 흔히 하지 않는 일을 자기 혼자 유일하게 한다는 의미가 깊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가 남이하지 않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때 “나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노동부가 편찬한 1986년판 「직업사전」을 보면 1969년에 우리나라에 3천260여종의 직업이 있던 것이 1986년에는 6배가 늘어난 2만여종의 직업이 분포되어 있어 이를 「표준화된 분류표」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다.

문화가 발달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 지면 직업의 종수는 점차 늘어나고 세분화되어 진다. 인간의 단순한 노동만으로 가능했던 종래의 전근대적인 생활양식이 복잡다양하게 분업화된 근대 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누구든 혼자서 전체일을 전담하여 처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직무의 분담화가 불가피해 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고 또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곧 전문직의 필수요건이다.

전문직은 하루아침에 당장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지식의 전수와 일정량의 교육비 투자와 상당기간의 훈련기간을 거쳐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이른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또 2만여종의 직업에서 나만이 독특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전문직이라고 자처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소수 엘리트로 그 수가 한정된다. 그래서 사회는 이들에게 자격증에 걸맞는 신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수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문직의 개념은 미국의 「직업명사전」에서 명쾌히 정의하고 있다. 즉 “전문직이란 높은 수준의 정신활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복잡한 인간활동의 이론과 실제면에 관련된 직업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직업들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장기간의 학교교육이나 또는 이와 동등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경험 또는 그러한 교육과 경험의 결합을 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문직의 요건은 이미 금세기 초부터 사회학자와 도서관학자들에 의하여 그 틀이 준비되고 있다. 코간(Morris Cogan)은

- ① 학문분야의 이론적 체계를 이해하고 여기서 나오는 능력을 기초로 하는 직업

② 같은 직업인들의 협회조직  
 ③ 면허증 소지  
 ④ 이타적 봉사를 위한 윤리강령  
 등을 전문직의 자격으로 요구하였고  
 앤드류스(Kenneth R. Andrews)는 전문직의 인정을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① 연구를 통한 지식 또는 이론체계
- ②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
- ③ 전문직자체를 발전시키고 노력하는 일
- ④ 실행기준을 설정하는 자율적 통제
- ⑤ 네가지 기준을 가짐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는 다.

그리고 김중환박사는 전문직의 기준으로서 다음의 다섯가지를 들고 있다.

- ① 사회가 학문적 배경을 요하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수를 주며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부한다.
- ② 전문지식과 학식을 갖추고 능숙한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고객에 대한 봉사책임을 가진다.
- ④ 전문단체에 대한 관계가 소속기관과의 관계와 같을 정도로 충실하다.
- ⑤ 직업단체와 분리된 학술단체에 속한다.

이상의 것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기준에는 합쳐되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① 전문지식과 훈련
- ② 봉사책임과 자율성
- ③ 전문직단체 조직
- ④ 자격증 또는 면허증
- ⑤ 사회적 인정

그러면 전문직으로서 우리 사서는 과연 어떠하며, 그리고 이 기준에 적용시키면 어느정도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 2. 사서는 과연 전문직인가?

이와 같은 우문(愚問)을 던지는 이유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우리 사서는 정말로 전문직으로 손색이 없

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자문해 보고 그 답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 가설(hypothesis)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서 긍정의 해답을 얻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그러자면 사서가 전문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밝힌 전문직의 다섯가지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고 접근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통한 지식을 구비하고 훈련과정을 거친다.

후기산업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지금 고학력사회, 학력의 평준화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웬만한 중산층과 소시민도 대학교육을 받았고, 이와 유사한 훈련을 쌓아 제 나름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1985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중 10.9%가 고등교육 이수자란 사실(「한국의 교육지표」 한국교육개발원, 1988)을 감안할 때 동사무소직원이나 우편집배원이 대학교육을 받은 고학력의 소유자라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들이 모두 스스로 전문직의 방석을 포기하고 「행정직」 혹은 「기능직」으로 자위하고 있을 때 우리 사서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전문직일 수 밖에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1951년, 버틀러(Pierce Butler)는 “사서직이 전문직이리는데 이의를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친 바 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말은 1990년대 지금까지도 효험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사서가 전문직 내지 교수직위(faculty status)로 인정받기 시작한지가 1백년이 넘고 있다. 그들의 사회적 관념과 도서관학 교육의 역사가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1926년 시카고 대학 도서관학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된 이래 136개의 국, 사립교육기관(캐나다포함)에서 1981년까지 1,668명에게 박사학위가 수여되었다. 이는 47년동안 년 평균 14명의 도서관학분야 박사가 탄생된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비교적 최근(1973~1981)에 와서는 년평균 111명의 박사가 해마다 쏟아져 나오

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전문직 기반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모두 도서관 현직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 일부가 학과의 교수직으로 전용되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박사그룹이 도서관 관리인으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대개 석사그룹은 거의가 실무진으로서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단 몇사람(한자리수)만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석사학위 소지자도 두자리수 이내의 극히 적은 숫자로서 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원 수준의 교육기관은 어떠한가? 1974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도서관학 박사과정이 설치된 이래 서울의 4개 대학에서 매년 2~3명 정도의 박사가 탄생될 뿐이고 석사과정도 10개의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해마다 기십명 정도의 석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들 석사의 상당수가 도서관 내지 자료실, 정보실 등에서 전문직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학사 「정사서」로서 만족해야 하고, 직급상의 현실은 「준사서」로서도 자족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시골 면사무소의 하급 공무원이 대학출신자로 모두 채워질 때 우리 사서가 학사 「2급정사서」의 간판을 가지고 전문직이라고 우기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서의 자격요건을 명실공히 전문직으로서 모양새를 갖추려면 미국처럼 교육과정을 최고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석사학위수준의 교육기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리고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도서관학의 교육과정을 앞으로 개편될 5년제 법과대학처럼, 현재의 6년제 의과대학처럼 교육년한을 연장하여 이론과 실기는 더욱 공고히 하는 것도 시도해 볼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사서체제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은 현행 「1급정사서」의 규정에 따라 현직 훈련이 요구되고, 이러한 시행은 과도기에 실시하는 잠정적인 과정으로 그쳐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에 대한 봉사책임과 자율성 확보이다.

모든 전문직이 그렇듯이 사회에 대한 봉사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전문직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사, 의사,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사서가 책임질 상대는 도서관의 고객(이용자)이다. 이러한 고객은 도서관 관중별에 따라 다양하게 우리주변에 산재하고 있다. 학자가 해당되고, 일반시민과 주부, 어린이가 포함되며, 초, 중, 고, 대학생이 모두 봉사의 대상이 된다. 이들 모두가 사서를 신뢰하고, 요구하는 정보가 그들의 가슴에 가득 채워질 때 사서의 자긍심도 정비례해서 충만해 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서는 반드시 타의 지시나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분명히 자율적인 행위로 히포크라테스적 선서와 같은 자기규율속에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서가 자율의 바탕아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이타적 동기로 참정보(genuine information)를 이용자에게 봉사할 때 전문직으로서의 발판은 자연히 굳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전문직 단체를 조직하고 가꾸는 것이다.

이 항은 본 주제발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켈란(W.P. Kellan)은 “단체(협회)의 존재는 전문직으로 향하는 지침이며, 협회는 생각하지 않고는 사서의 전문성을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극언한 것으로 보아 협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협회는 사서의 권익을 옹호하고, 도서관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서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사서들이 소속한 기관과 회원 개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일을 창안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실행기준을 만들고, 윤리강령을 마련하며, 이의 준수여부를 감독, 통제하는 기능까지 갖추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한다.

미국의 경우 도서관협회가 자체적으로 「도서관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 「독서자유선언」(Freedom to Read Statement)을 천명하여 도서관전문인의 자존심을 고취시켜 주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한국도서관협회가 창설된 이래 1990년 8월 현재 단체회원 686기관, 개인회원 668인, 평생회원 171인을 가진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여 손색없는 전문협회로 성장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도협이 창설된 후 지금까지 도서관과 소속회원에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며 누구나 이 우산속에서 보호받고, 그 테두리속에서 활동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같이 도협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정의 시각으로 “도대체 도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국도서관협회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힐책의 소리도 없지않다.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소속회원들의 참여의식부족, 둘째, 지도자의 리더쉽 부재, 셋째, 창의적 발전전략의 미개발, 넷째, 조직력과 행정력의 미비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넷째, 자격증은 권위와 실용적가치가 있어야 한다.

전문직의 신분적 가치는 자격증에서 나타나며, 이는 곧 특수한 임무를 맡거나 일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증서이다. 이 증서는 국가 또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발부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기술과 실력을 갖춘 적격자인지 진위(眞僞)를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거나 일정한 심사기준에 합격되어야 비로소 자격이 인정된다. 아무리 막강한 절대권력기관이라도 이와같은 규칙을 무시하고 안이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그 자격증은 권위와 실용적인 면에서 별 가치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증은 문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급하는데 시험이나 심사기준이 없이 누구나 이 분야의 학과목을 일정시간만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자격자의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한국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보다 오히려 미국도서관협회(A.L.A)와 같은 사설기관의 자격증이 훨씬 더 실용

적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요는 발급처의 문제가 아니라 발급에 따른 과정과 자격의 내용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준사서」 「2급정사서」 「1급정사서」 「사서교사」의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아무런 국가고시나 심사 및 자격취득전형을 거치지 않는 이러한 방법으로 양산된 자격증으로는 권위와 실용적 가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가 이와같이 사서의 권위를 계속 실추시키고 남발하기를 고집한다면 앞으로 사서자격증의 발급은 한국도서관협회가 행정력을 위임받아 이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전문직의 사회적 인정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전문직의 업무가 그 사회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얼마나 혜택을 베풀 수 있는가에 따라 반대급부적인 사회의 대접과 존경의 표시가 돌아온다. 사회적 안정의 가시화는 봉사의 질에서 나타나며 사서 개개인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기초로 하여 구체화된다.

그런가하면 통념적인 사회적 인정은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라기 보다 단체행동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고 한다. 전문직단체를 통하여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그들이 창조한 새로운 지식을 교류하며 자신들의 권익과 자기실현을 위하여 공동노력을 한다면 인정도는 점차 가속화 될것이다. 그리고 단체의 충실화는 결국 개인의 충실화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사서의 사회적 인정은 둘다 병행하여 이루어질 때 더욱 확실시될 것으로 여겨진다.

### 3. 전문직단체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협회는 사서직의 목표와 이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직업단체기능과 학술단체기능의 양면성을 가진다고 최성진교수는 말하고 있다(사서직의 전문성 고찰, 『도협월보』15: 10).

전문직으로서 한국도서관협회(약칭: 한도협)는 위의 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서

관계를 주도해 왔다. 우선 직업단체기능으로서 <한도협>은 20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대학 및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의 견인차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필요한 실무편람, KDC, KCR 등 지금까지 80여종의 도서를 출판하여 현장의 교체와 도구를 공급하였고, 해마다 전국규모의 도서관대회와 독서주간 등을 행사하여 불모의 도서관을 이만큼이나 일구어 왔다. 그리고 학술단체의 기능으로서도 산하에 8개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이 분야의 학술진흥을 위해 교과서와 번역서를 출간하기도하고, IFLA세미나 등을 유치하여 한국의 도서관 및 도서관학의 위상을 정립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1990년대를 맞이하여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국민의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직 사서의 일각에서 자아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한도협>이 수행해 오던 직업단체기능에서 그 역할분담을 자청하면서 이른바 「전국사서협회」(약칭: 전사협)라는 전문직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학술단체의 기능면에서도 <한도협>소속 전문위원회의 조사연구기능이 미진함에 대하여 업무상 절박한 한계를 인지한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분야에서 이 역할을 떠맡기 위해 이미 5개의 학회가 창설되어 활동중에 있다.

그리고 직업단체기능과 학술단체기능의 양자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협의체만하여도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국도서관학과장협의회」 「전국국립대학도서관학과교수협의회」 등이 존재하여 <한도협>의 기능을 보완시켜 주고 있다. (<전문직단체현황표> 참조)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 최근에 우리에게 관심을 주고 주목의 대상이 되는 <전사협>은 과연 어떠한 단체인가? 그 전말을 알 필요가 있다.

1988년 5월에 결성된 「전국도서관학과학생연합회」(약칭: 전도련)를 모태로 한 이 협회는 1990년

5월 2일 전국의 공공 및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150인의 소장그룹으로 이루어진 일선사서들이 모여서 「전국사서협회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어서 1990년 10월 9일 이들은 정회원 3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전국사서협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가 이 세상에 움트기 시작한 것은 2년만에 불과하고, 하나의 실체로서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반년이 채 되지 못하며, 이제 그 조직의 정체가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반달밖에 되지 못한다.

이들의 새로운 등장은 그동안 잠자고 있던 도서관계와, 시민의 입장에서 한동안 잊어 버리고 있던 도서관을 재인식시키는데 합목적적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이로써 사회의 신선한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든다면 「전사협」이 태동하던 1990년 4~6월 석달동안 국내 신문, 잡지등에서 보도한 도서관 관계기사가 총 43건이나 되는데 그 중 순수 「전사협」에 관한 기사가 서울 9건, 지방 11건, 잡지 3건이 되어 전체 기사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같은 수치에 나타난 사회적 관심도를 평가할 때 그동안 우리 도서관계가 40년 노력이 필적할 만한 홍보효과가 이들을 통하여 거두어 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단시일에 보여준 거국적인 보도현상은 이제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도서관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뜻이며 우리도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도서관의 젊은 사서들이 모여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려는 동기는 순수한 데서 출발한다. 그것은 이제 도서관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서도 단순한 정보전달자가 아니라 주인노릇을 행세해 보겠다는 뜻이 있다.

그리하여 이와 연관되는 도서관행정의 변칙성과 그 운영의 파행성을 지적하며 그 담당자로서 자기비판과 함께 반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서관 전문직 단체현황>

1990. 8. 현재

| 명칭           | 설립일자       | 본부         | 성격  | 간행물                 | 회원                               |
|--------------|------------|------------|---|---------------------|----------------------------------|
| 協<br>韓國圖書館協會 | 47. 4. 21  | 서울         | 각종의 도서관 시설의 제휴하에 도서관 사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 한국의 문화향상에 공헌하고자 함. | 圖書館文化 외 단행본다수       | 개인 : 668<br>단체 : 686<br>평생 : 171 |
|              | 90. 10. 9  | 서울         | 도서관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참다운 도서관 문화를 정착하며 사서의 권익 옹호에 역점을 둠      |                     | 개인회원<br>350                      |
| 學<br>韓國圖書館學會 | 70. 1. 10  | 서울<br>성균관대 |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 圖書館學 第1~18輯         |                                  |
|              | 74. 4. 20  | 대구<br>계명대  | 도서관학 및 정보학연구를 통하여 학문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 圖書館學論集 第1~16輯       |                                  |
|              | 84. 5. 12  | 서울<br>중앙대  | 정보관리학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학문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 情報管理學會誌 第1~7권1호     |                                  |
|              | 85. 10. 23 | 서울<br>연세대  | 서지학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여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 書誌學研究 第1~4輯         |                                  |
| 韓國書誌學會       | 90. 1. 13  | 서울         | 서지의 정보를 알리고 기존문헌의 해설과 연구, 분류별 정리사업을 하고자 함.            | 書誌學報 第1號            |                                  |
| 協<br>議<br>會  | 63. 2. 8   | 서울대        | 국립대학도서관의 운영과 개선 사서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1~8輯      | 35개<br>국립대학                      |
|              | 72. 7. 18  | 광주<br>조선대  | 사립대학 도서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협력하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디렉토리, 도서관전산화 자료집 발간 | 41개<br>사립대학                      |
|              | 86.        | 공주대학       | 국립대학 도서관학·문헌정보학과의 정보교환 및 협안사항을 공동대처                   |                     | 6개<br>국립대학                       |
|              | 88.        | 서울<br>중앙대  | 전국 도서관학과의 학술교류 공동관심사 협의, 정보교환                         | 교수주소록 발간            | 4년제<br>30개학과<br>전문대<br>6개학과      |

그들의 「발기결의문」을 보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도서관계는 도서관정책의 부재와 행정체계의 미정립, 도서관의 절대적 수 부족과 자료의 빈약성, 도서관활용 저조와 다원적 기능수행의 부족, 비전문

직자에 의한 도서관 운영과 사서 스스로의 무기력등으로 침체의 길을 벗어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서들은 이러한 도서관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까지 무기력에서 벗어나 전문직으로서의 자질향

상과 이를 바탕으로한 도서관봉사를 통하여 선진적, 민주적시민의식의 함양과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창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고 하여 지금까지 수동적이고 고식적인 사서의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대환경과 상황변화에 따라 지식정보의 관리자 내지 탐지자로서 이시대에 가장 영예로운 사서가 되기 위한 기폭제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들은 첫째, 도서관 주무부서의 이관문제가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익에 의해 결정될수 없으며 문교부나 문화부는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둘째, 도서관의 제반 모순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하고, 이제부터 주어진 목소리로 전문직임을 선언하고, '전문직운동'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셋째, <전사협> 결성의 당위성을 내외에 천명하고, 도서관의 주체가 사서라는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도서관문화의 건설자라는 각오로 조직한 것이다. (「전사협발기문」 및 「성명서」에서)

전문직단체로서 <전사협>의 출현은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다. 즉 "올것이 왔다.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견해와 "협회는 하나로 죽는다. 그런 단체는 더 이상 필요없다"라는 견해이다.

전자의 견해는 주로 도서관내의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서들의 의식에서 나온 것이고, 후자는 변화를 싫어하는 도서관의 보수주의자와 <한도협>의 원로층 그리고 문교부의 행정관료로부터 나온 견해이다. 불필요하다고보는 이유는 삼자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도서관의 보수파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결과로 이만큼이나 발전하였고, 협회는 두개가 아니라도 잘 될것이라며 낙관론을 주장하며, <한도협>측에서도 협회는 두개가 필요없다. 만들려면 분회(分會)로 출발하든지, 협의회를 구성하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측에서는 <전사협>을 보는 시각을 「전교조」내지 「전노협」과 동일시하는데 있다. 혹 전개될지 모르는 단체행동의 두려움에서 극구 반대한다.

이와같이 일부에서 <전사협>의 출현에 당혹감을

느끼고 반기를 드는데 반하여, 그래도 도서관현장의 한쪽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것은 <전사협>의 주장이 비록 새로운 것이 아닐지라도 사서들에게 공감을 주고 여기서 제기된 현안사항은 그들이 평소 바라던 '희망사항'이며, 이 단체만이 우리들을 대신하여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성취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사협>은 태어날 때 부터 희비의 양면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격려와 지지가 있는 반면에 상당한 저항도 또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전사협>은 이들 양자 모두가 기대하는바를 배반해서도 아니되고 또한 실망시켜서도 아니된다. <전사협>이 전문직단체로서 명실공히 성공을 거두고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사항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사협>은 그들의 본질을 구현키위해 스스로 일으킨 자각운동을 내외에 확신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윤리성이나 기술이 왜곡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말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그다음 그들의 정치적 역량은 차선으로 접근시켜야 한다.

예컨대, 대정부관계, 대언론관계는 그들만이 갖는 전위성이나 추진력으로 보아 일단 기대를 걸만하다. 그러나 <한도협>의 대표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둘째, 보수적인 바탕에서 너무 진취적인 이론과 활동은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일정한 시간, 주위의 관심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의욕과 열기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민첩함도 좋지만 줄속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전통적 도서관에서 지나친 개혁의식은 오히려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원로로부터, 기성의 전문단체로부터 그리고 권력기관으로부터 '버릇없는 아이'로 오인되지 않도록 행동의 신중함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상호간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 <전사협>이 발족함으로써 기존의 <한도협>에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두 기관은 반목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질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더욱 아니된다. 상호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고, 협력단체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근무처내에서도 가입사서와 비가입사서간에 양분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를 찾아야 하며 갈등은 절대 없어야 한다.

넷째, 조직력을 구축하고 발전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도협〉의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전사협〉은 개인회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도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하기 때문에 (결성취지문의 「회원자격」에서) 회원수가 매우 한정되고 활동의 범위도 좁아지게 된다.

그리고 조직의 운영은 주로 회원의 개인회비로 충당되고, 회원의 구성도 거의 현장에서 근무하는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의 일에만 전담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궁극적으로 〈전사협〉의 사업목표는 직업단체로서의 기능만을 주안하되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업의 방법은 자기 영역을 일단 구축하되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하기 어려운 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발전 전략을 꾸준히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 4. 결론에 대신하여

본 발표의 주제는 전문직단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전문직단체는 무엇을 말할인가? 직업단체기능으로서 말 할것인가? 학술단체기능으로서 말 할것인가? 〈한도협〉의 이번대회의 주제와 성격으로 보아 전자의 내용을 가지고 주안 삼는것이 온당하다 하겠다.

제1장에서는 전문직의 개념에 대해서 밝히고 전문적이 되기 위한 다섯가지 기준을 설정하였고 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우리 「사서」에 관해서이다. 구미에서는 도서관의 사서가 전문직으로 정착된지가 이미 오래이나 우리는 이제 그 진입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서가 명실공히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5개항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우리는 그 의무사항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가 정리되고 해결되면 사서직은 전문직으로서 발판이 더욱 굳어 질 것이다.

제3장은 새로운 전문직단체의 출현에 관해서이다. 즉 “〈전사협〉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진다음, 여기서 다시 해답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전사협〉발족의 동기와 성격을 밝히고, 이를 보는 사계의 시선을 관찰하며, 우리들의 여론을 도출하고 점검해 보는 것이다.

〈전사협〉은 우리 도서관계에 필요선인가? 필요악인가? 아니면 전혀 불필요한 존재인가? 총무처에서는 공한으로 “공무원신분으로서 사설 전문직단체 가입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들추며 애매모호한 답신을 보내왔다. (1990.5.14, 총무처장관)

한편 도서관계의 원로층에서는 「〈전사협〉의 운동」이 이른바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노조」성격으로 혹시 발전하지 않을가하는 우려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젊은 계층의 사서들은 〈전사협〉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결국 〈전사협〉은 조직되었고, 전문직단체로서 출항의 닻을 올렸다. 그러나 이것이 난파되지 않고 순항을 계속하려면 파도와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다시한번 겸허하게 자기성찰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전사협〉이 이 시대에, 이 땅에 꼭 필요하다는 존재가치를 실감할 수 있도록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모든 도서관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 대신하여 〈한도협〉측에도 간언(諫言)이 필요하다.

〈한도협〉은 우리나라 도서관역사에서 항상 구심점이 되었고 도서관계를 지탱하는 지주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다고 앞장(前章)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한도협>은 “우리 사서를 위하여 한 일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며 “한번도 반성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기도 한다. 심지어 ‘어용’이라고 몰아 세우기도 하고, ‘문교부의 시녀’라고 극언을 서슴치 않기도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사협>의 출현은 일종의 반발 심리가 증폭되고 <한도협>이 부정적 시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새로운 협회에 기대를 거는 측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간과할 수 없다면 앞으로 <한도협>은 진로를 어떻게 개척하여야 할 것이며, 또 <전사협>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숙제에 대하여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풀이 보고 싶다.

첫째, <한도협>은 전문직 직업단체의 정통성을 가

지고 소속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전문직단체의 역할을 계속해서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

최근 「사법서사협회」와 「간호협회」에서는 그들의 주장으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간호원’을 ‘간호사’로 명칭변경을 관철한 바 있다. 협회의 역할수행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전사협>을 긍정의 시각에서 이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혼자서 지고 있던 역할의 짐을 나누어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제공해 주고 지원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미운 오리새끼’가 되지 않도록 애정어린 손길로 그들을 보살피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 137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 (535) 4868·5616

| 서 명                       | 저 자      | 발행연도 | 면 수   | 가 격                       |
|---------------------------|----------|------|-------|---------------------------|
| 한국십진분류법<br>(본표·상관색인)      | 분류분과위원회편 | 1980 | 1,030 | 20,000원                   |
| 한국 목록 규칙<br>( 3.1 판 )     | 한국도서관협회  | 1990 | 101   | 4,000원(양장)<br>6,500원(반양장) |
| 한국도서관통계<br>( 1989 년 도 판 ) | 한국도서관협회  | 1989 | 64    | 4,000원                    |
| 도서관학·정보학<br>용 어 사 전       | 사공 철 등 편 | 1986 | 336   | 15,000원(반양장)              |
| 한국학자료선정목록                 | 한국도서관협회  | 1986 | 331   | 18,000원                   |